

한·중·일 신협력구상 세미나  
**‘한중 신협력시대에서의 협력방안 모색’**  
**해외출장복명서**

2015.12.10.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

1. 출장 개요

(1) 출장자 : 김도훈 원장님, 조철 주력산업연구실장, 강지연 연구원

(2) 출장지역 : 중국 베이징

(3) 출장기간 : 김도훈 원장님 (2015년 11월 30일 ~ 12월 1일)  
조철 실장님 (2015년 11월 29일 ~ 12월 2일)  
강지연 연구원 (2015년 11월 29일 ~ 12월 3일)

(4) 출장 목적

○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중국측에 제안

- 한중일 3국은 이에 화답하여 11월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동북아 신협력시대의 개막을 예고

- 특히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의 금년내 발효를 약속하고 무역 확대 6건, 혁신 협력 강화 4건, 제3국 시장의 한·중 공동진출 등 총 17건의 MOU를 체결하고 금융협력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한중 신밀월 시대를 구가

- 구체적으로 ‘제조업혁신 3.0 전략과 중국제조 2025의 연계협력 MOU’,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에 관한 MOU’ 등이 체결

○ 이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국사회과학원과 함께 한중 정상 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함.

- 동북아 신협력을 대주제로 정치, 경제, 인프라, 문화 등 4개 세션에서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출장 일정

출장지	일정	세부 일정
베이징	11. 29 (일)	세종, 인천 ⇒ 베이징 (OZ333)
	11. 30 (월)	세미나 개최 준비, 이사장님 주재 만찬
	11.29(일)~ 12.3(목)	<b>한중일 신협력구상 세미나</b> <b>‘한중 신협력시대에서의 협력방안 모색’</b>
	(4박 5일)	12. 2 (수) 세미나 마무리 작업, 공업경제연구소와 업무 협의
		12. 3 (목) 베이징 ⇒ 인천, 세종 (OZ6804)

## 2. 세미나 개요

### ○ 주관 및 후원기관

-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사회과학원
- 주관 : 산업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 후원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일 시 : 2015. 12. 5.(화) 10:00 ~ 18:00

○ 장 소 : 중국 베이징 Crowne Plaza Beijing Lido 2층

### ○ 토론회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b>안세영</b>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b>차이팡</b>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축 사 <b>박은하</b> 주중국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축 사 <b>황첸후이</b>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소장  공동사회 (한국)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 (중국) 왕레이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협력국장
<b>[제1세션]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의 역할</b> <b>좌장: 리상양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원장</b>		
10:30-11:50	발표	<b>왕위주</b>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구역협력실 주임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동북아 공동번영” <b>신중호</b>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한반도 공동번영과 한중의 역할”
	토론	<b>이주형</b> 창원대 교수 <b>이문기</b> 세종대 교수 <b>자오장린</b>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경제실 주임 <b>종페이팅</b>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대미관계실 주임
12:00-13:30	오찬	

<b>[제2세션] 한중 FTA시대와 동북아 경제협력</b> <b>좌장: 황수젠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b>		
13:30-14:50	발표	<b>황훙후이</b>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소장 "일대일로 주변국가 산업화수준과 생산력 협력" <b>조 철</b>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동북아 분업구조 변화와 산업협력 방안"
	토론	<b>주영섭</b>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서울대 교수 <b>양평섭</b>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장 <b>황한첸</b> 중국국가발개위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b>뤼티에</b>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공업발전실 주임
14:50-15:10	휴식	
<b>[제3세션] 동북아 인프라 협력</b> <b>좌장: 이상민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b>		
15:10-16:30	발표	<b>스 단</b>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당서기, 부소장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에너지 협력" <b>서종원</b>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중 협력"
	토론	<b>최용민</b> 무역협회 북경지부장 <b>정성삼</b>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b>양단후이</b>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자원환경연구실 주임 <b>리하이젠</b>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소장조리
<b>[제4세션] 한중 문화 협력</b> <b>좌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b>		
16:30-17:50	발표	<b>왕샤오링</b>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문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중국의 문화정책과 한중 협력" <b>고정민</b>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의 문화정책과 한중 협력"
	토론	<b>박찬욱</b>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b>김기현</b>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장 <b>왕궈성</b>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전략실 주임 <b>장중위안</b> 중국사회과학원아태세계전략연구원 경제실 조리연구원
17:50-18:00	마무리	<b>신정승</b> 전 주중대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b>황수젠</b>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소장

## ※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 3. 세미나 내용

#### 1) 제1세션 :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의 역할

##### ○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동북아 공동번영

-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국가
  - 동북아지역(한국, 중국, 일본, 몽골)에서 중국의 GDP는 전체의 63.2%, 한국은 8.6%를 차지
  - 2013년까지의 외자유치규모도 중국이 전체의 73.0%, 한국은 12.8%를 차지
-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금년 정식서명한 한중 FTA는 협상 수준이 역대 최고 수준
- 과거에는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으나, 한국, 중국의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격차가 많이 좁혀짐. 따라서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력을 제고시킨다면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임
- 한중의 경제협력은 동북아지역내의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지역간 상호연결, 소통, 원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향후 한중 양국은 공동번영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해야할 필요성이 큼.
- 우선 한중 FTA 후속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
- 동북아지역 개발도상국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참여
- 역대 국가간 협업 기능을 강화, 생산능력 향상

#### ○ 한반도 공동번영과 한중의 역할

-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등 진정한 동북아시대가 도래
- 하지만 주권, 영토,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지속되는 등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
- 한국은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 등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실현하고자 함.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다층적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구축,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 마련, 북한의 참여 유도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해 한중 양국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큼.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관계가 발전
  - 1992년 선린우호관계,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2013년 성숙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 한국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상회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고 전략적 중요성도 증대(한중 FT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 서명 등)
- 동북아 신협력시대에 한중 협력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지속할 필요
  - \* 최고위급 전략기제 활용을 통한 정치외교적 합의
  - \*\* 북한의 변화 및 국제사회 참여 유도 등 경제적 접근
-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북한 참여 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북한의 거부감이 덜한 의제를 선정하여 북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 예를 들어 보건의료, 개발협력, 조경삼림, 재난구조, 농업 등
  - 황금평, 나진선봉특구 개발에 남-북-중이 공동으로 참여
  -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

- 금년 10월에 서명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의 국가적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한중 상호이익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 동북 3성 지역에서 협력
- 남-북-중 협력이 용이한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창지투 개발 선도구 사업, 접경지역(단둥, 투먼, 훈춘)에 제2개성공단 설립, 광역두만강계획, 훈춘 포스코물류단지 등 활용)

## 2) 제2세션 : 한중 FTA시대와 동북아 경제협력

### ○ 일대일로 주변국가 산업화 수준과 생산력 협력

- 일대일로 주변국가로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5개국), 몽-러, 동남아시아(11개국), 남아시아(8개국), 중동부 유럽(19개국), 서아시아 및 중동(19개국) 등이 있음.
- 산업화 단계는 산업화 이전, 초기, 중기, 후기, 이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대일로 주변국의 소득 수준과 산업화 단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 초기, 중기단계에 있으며, 중동부 유럽국가는 산업화 후기단계에 속함
  - 산업화 이전: 네팔
  - 산업화 초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
  - 산업화 중기: 알바니아, 시리아, 몽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라크 등 16개국

- 산업화 후기: 카자흐스탄, 태국,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32개국
- 산업화 이후: 싱가포르, 이스라엘
- 일대일로 주변국가는 국가별로 산업화 단계, 경제발전 수준, 비교우위 산업이 각각 상이
- 산업화 후기국가는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산업화 중기국가는 자본집약형 산업, 산업화 초기국가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종사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방직품, 완구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동남아시아의 산업화 초기 국가로 이동할 전망
- 에너지 제품, 화학공업 제품, 금속제품 등 자원집약형 산업은 중동부 유럽의 천연가스 보유국과 중앙아시아의 광물자원 보유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자본, 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음
- 전기기계 제품이나 장비제조품 등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동부 유럽의 산업화 후기 국가로 이동하여 상호 기술 보완을 이룰 것으로 보임

○ 동북아 분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협력 방안

- 한중일은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나라로, 주요 산업에서 3국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은 ICT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고위기술산업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

- 중국은 ICT산업과 저위기술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중위기술산업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생산대국으로 부상
- 일본은 중고위기술산업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위기술산업은 경쟁력이 매우 낮고 ICT산업도 경쟁력이 크게 하락
- 한중일 부품소재 거래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핵심부품소재 부문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
- 중국은 부품소재부문에 있어 한국과 일본에 각각 470-48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조립하는 중국의 역할은 지속
- 그러나 중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범용부품소재의 공급자로서 급부상
- 한국도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게 늘지 않고 수입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중일의 역할은 상이한데,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생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단순 조립, 한국은 중간재 조립, 일본은 한국이 생산하는 부품의 소재를 공급함
- 이와 같이 중국은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 즉 생산은 세계 1위이나, 독자브랜드가 취약하고 핵심부품 생산도 미미
-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브랜드(하이얼, Midea, TCL, 샤오미, 화웨이 등)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중국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

- 빠른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로 인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연구개발 투자국으로 부상
  -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특히 국제출원도 급증
  - 임금 등 생산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이점은 상실, 생산거점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발생
- 한편, 한중일 3국은 신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큼.
- 한국은 제조혁신 3.0을 통해 항공기, 해양플랜트, 자동차, 로봇, 기계, 비철금속, 반도체, 모바일기기, 가상현실, 헬스 케어,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에서 스마트 융합제품의 핵심기술을 개발
  -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등 10대 산업을 선정
  - 일본은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시스템 솔루션을 수출하고, 차세대 도시교통시스템·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할 계획. 또한 분산형 에너지자원의 활용에 따른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로봇기술을 활용한 유니버설 미래사회의 실현을 추구
- 향후 산업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겠으나, 이와 동시에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큼.
- 우선 한중은 새만금 경험단지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가공제조업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방향을 유도. 해외연구개발투자, 생산성서비스 해외투자, 해

외에너지 및 자원 협력 투자 등을 강화

- 또한 새만금 경협단지에 세계적 판매망 및 국제적 유명 브랜드를 유치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중국 해외농업투자 및 해외건설투자도 고려 가능
  - 중국이 한중경협단지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 브랜드, 문화 등이 강조될 필요
- 신산업 분야에서 한중일 정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생산 및 시범기지를 구축할 필요
- 신산업발전에 있어서도 한중일 모두 초기단계에 있고,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됨
  -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이나 보급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
  -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친환경자동차, 첨단장비, 차세대정보산업 등 한중일의 신산업 중 특정분야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생산기지를 구축
  - 신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등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한중일 공동으로 추진

### 3) 제3세션 : 동북아 인프라 협력

#### ○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에너지 협력

- 한국은 중국보다 석탄 소비비중이 3%p 낮고 천연가스와 원자력발

전의 비중은 약 10%p 높음. 전력 생산 구조면에서 한중 양국 모두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함

- 한국은 에너지 사용효율이 중국의 2.5배 이상이고 중국보다 이른 시기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했으나 성장세는 뒤처짐. CO<sub>2</sub> 배출량과 단위GDP당 CO<sub>2</sub>도 중국보다 적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이 중국보다 많음

- 한중 양국 모두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의존도가 각각 60%, 30%임

- 한중 3대 에너지 협력 1) 에너지 협력 시스템 구축

· 동북아 지역 에너지 협력시스템 마련하여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동참

- 한중 3대 에너지 협력 2) 한중 양자 협력

· 석탄 무역 확대(지리적 접근성과 저렴한 운송비용 기반)  
·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노하우 습득)  
· 에너지 비축 협력 증진(한국의 석유비축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우선사용권을 부여받는 방식 제안)  
·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 배출저감 관련 기술 협력(한국 POSCO 세계 최대 연료전지 생산공장 보유, 한국 OCI 대중 폴리실리콘 수출)

- 한중 3대 에너지 협력 3) 다자간 협력

· 아시아 천연가스 현물 및 선물 거래시장 플랫폼 구축 추진( ‘아

시안 프리미엄’ 극복)

- 테러 예방과 에너지 안보 협력(에너지 생산기지 및 운송로의 안전 수호)
- 역내외 천연오일가스 및 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일대일로’ 주변 국가간 협력 확대, AIIB 활용한 중앙아시아-한중 연결 인프라 협력, 중국의 심해탐사기술 활용한 천연오일가스 탐사 협력)
- 인프라 건설 및 상호연계 강화(‘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목)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중 협력

-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지역과 교역량이 증가한 반면, 유럽은 교역량이 정체 혹은 감소되는 등 유라시아의 경제 여건 변화가 큼.
- 세계화의 진전으로 단일 국가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유라시아 전체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유라시아 공동발전전략이 필요
- 복합교통물류운송로 개발 필요성 확대 등 기존 해운 중심의 국제 교역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철도 중심 복합운송망 개발이 요구되며 유라시아 공동발전을 위해 국제운송로 연계 전략이 필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는 모두 유라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국제운송로 구축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필요
-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음. 한중 양국은 북한 및 동북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에서도 협력할 필요
- 현재 한중 교류확대를 위한 한중 교통협력사업으로는 한중 열차

페리(평택-엔타이), 한중 해저터널(인천-웨이하이), 한국-북한-중국 경제회랑 구축 등을 검토 혹은 추진 중에 있음

-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방안 중 하나로, 남북중 경제회랑 구축이 있음.
- 남북중 경제회랑 1축은 베이징-선양-신의주-평양-개성-서울-부산을 잇는 것으로 라오닝 연해경제벨트와 북한, 한국의 경제거점을 연계. 주요 산업으로는 제조업, IT, 에너지, 금융, 문화 연계
- 2축은 선양-창춘-훈춘-라진-원산-강릉-포항-부산을 잇는 것으로 창지투선도구 지역과 북한, 한국의 동해 물류거점을 연계. 교통물류, 자원수송, 중공업, 에너지 연계
-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 징진지를 연계하여 환발해 메가경제권을 개발할 필요. 철도, 열차페리, 해저터널 연계를 통한 메가경제권을 형성
- 환황해, 두만강유역, 환동해를 연계한 동북아 메타경제권을 개발. 해저터널, 해운, 철도, 도로를 연계하여 인구 6.5억의 동북아 메타경제권을 형성

#### 4) 제4세션 : 한중 문화 협력

##### ○ 중국의 문화정책과 한중 협력

-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 협력 분야에 ‘한중류’ 시대가 도래
- 한중 사회문화 교류의 상호 형성기에 진입
  - 사회적 교류 확대, 소비문화의 동질화 심화, 한중 공동출자·상호 영향·공동제작·공동소비로 인한 ‘한중류’ 현상 출현

- 중국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
  - 시장 요인: 중산층 확대, 문화 소비 수요 증가, 고학력 인력 증가, 중산층 일자리 수요 증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중국 경제의 뉴노멀 진입으로 문화산업이 새로운 투자 분야로 부상
  - 정책적 요인: 2014년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끌고 성장률 목표 15% 이상 달성 제시, 일대일로를 통해 문화산업에 발전 계기 마련
- 한중 문화산업의 협력을 확대
  - 시장(중국 중산층 성장), 자본(중국자본의 한국 문화산업 유입), 기술(협력 노하우 및 인재 확보), 유통(전자상거래 발전), 제도(정부간 협정 체결)
- 한중 문화산업 협력의 기회
  - 한국 문화산업(큰 문화적 파급력), 중국 문화산업(빠른 발전), 한중 문화산업(양국 시장+자본+문화자원→글로벌 경쟁력 향상), 동아시아(한중뿐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건설 추진)
- 한중 문화산업 협력의 과제
  - 기존의 갈등(문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차이, 중국 위협론)과 새로운 불균형(양국간 영향력 비대칭, 계층간 이익분배 불균형, 경제민족주의) 존재
-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제안

- 다양한 채널의 감독 및 위기대응 시스템 공동 구축
- 한국사회에 대한 중국의 이해 증진, 양국의 균형적인 사회발전 중시
- 교육과 언론을 통해 동아시아 사회공동체 의식과 호혜상생의 세계관 배양
- 양국 협력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대

○ 한중 문화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국제문화협력이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주체간에 이뤄지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 세계 이해 증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 확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서의 문화협력에서 발전 동력으로서의 문화협력으로 전환, 국제문화의 지역간 교류 확대, 온라인 중심 및 민간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증가
- 한중 문화협력은 높은 문화적 접근성, 활발한 문화산업 교역, 중국 관광객 증가, 정치 외교적 이해의 공유라는 환경적 특성을 지님
- 한국은 문화부, 외교부, 교육부 등에서 문화협력 및 교류 정책 전개하고 최근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추진, 해외 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 문화홍보 강화,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제안 및 추진 중임
- 한중 순수문화예술 협력은 국가간 협력과 민간협력이 있음
  - 국가간 협력: 정부, 공공부문 차원에서 정책협력, 공동관심사 논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민간협력: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 관련 민간 비영리단체의 방문, 공연활동 등
-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 협력은 주로 수출과 라이선스, 콘텐츠 공동제작, 직접투자(중국의 한국투자는 부동산 이외에 문화콘텐츠와 패션 분야에 집중)의 형태
-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산업 협력 제안
  - 규제 완화 요청, 애니메이션 및 TV 드라마 등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제안, 세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 신설 제안
- 한중 문화협력 활성화 방안
  - 한중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규제 검토, 문화교류 기구의 해외진출 위한 협력
  - 쌍방향 교류: 문화협력 네트워크 강화하여 일방향성 보완
  - 저작권 보호: 한중 문화산업 지적재산권 보호협약 체결
  - 공동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 콘텐츠 상품 공동 제작하여 제3국 시장진출 도모
  - 전통문화의 재발견: 한중 전통 문화원형 발굴, 양국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활용
  - 민간 중심의 교류 확대: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비영리 기관의 교류사업 지원과 네트워킹 강화, SNS 등 신규매체를 통한 교류 확대 체계 마련

#### 4. 세미나 관련 기사

“단둥에 제2 개성공단 만들고 서해안에 韓中협력 시범지구“

2015-12-02 09:15

##### ■ 韓·中 FTA 이후 새로운 韓中관계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동북 3성 지역인 단둥 투먼 훈춘 등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해 전략적인 연결을 해야 한다.“ 한·중 FTA 비준을 맞아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 지대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한국 서해안권과 중국 발해만권에 한·중 FTA 시범지역을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은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크라운 플라자 베이징 리도 호텔에서 '한·중 신협력시대에서의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FTA 이후 새로운 한·중 관계를 모색했다.

신중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동북아시아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5.8%,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47.5%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며 “현재 경제 중심의 한·중 관계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실장은 또 “동북 3성은 한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역이며, 특히 남·북·중 협력이 용이해 단둥·투먼·훈춘에 제2 개성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천·웨이하이에 있는 지방경제협력 시범지구를 서해안권과 발해만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왕위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FTA로 인해 한·중뿐 아니라 인근 개도국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왕 연구원은 “기술 실

력 차원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을 추격하는 과정에 있다“며 “역내 영향력이란 측면에서 인접국들의 현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중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핵심 부품소재와 장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을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 공급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중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같이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해운 중심 교역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철도 중심의 운송망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역내 단일 시장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연결된다“고 부수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도 이 같은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그는 구체적으로 △랴오닝연해경제벨트와 남북 경제거점 연계(한반도 서부) △창지투선도구 지역과 남북 물류거점 연계(한반도 동부)를 사례로 들었다.

한류로 시작된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쌍방향 소통으로 바꾸고 이를 문화공동체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었다. 왕샤오링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제는 일방적인 한류 침투기를 지나 문화 상호 형성기에 접어들었다“며 “지금은 한중류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